

만남

2013 10
통권 통권 177호



묵주 기도 성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묵주기도 - 로사리오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나무와 열매, 집짓는 사람의 비유 -----	6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41~43-----	9
공동체 소식	-----	14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18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19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0
미사안내	-----	21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삶의 고통에 짓눌려 절망하는 이들이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전교 주일을 지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선포하는 사람임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묵주기도 - 로사리오"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로사리오는

주님의 어머니를 통해 밝혀지는 주님의 위대한 그림책이며,
하늘과 땅 사이에 흐름의 순환을 이어주는 신비에 가득 찬 끈이고,
과속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하늘이 내린 구원의 밧줄이다.

로사리오는

곤경과 위험 속에서 하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종의 줄이며,
어린 아이처럼 하느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이고,
지친 이들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떠받쳐 주는 지계이다.

로사리오는

나락에 던져진 구원의 밧줄이며,
열 두 사람 이상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허리띠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것을 입고
하늘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영대이다.

로사리오는

가나난 영혼과 큰 죄인을 영원한 천상 축복을 받은 자와 결부시켜
주는 끈이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인
헤아리기 어려운 미로 속으로 더듬어 나아갈 수 있는 끈이고,
피어오르는 장미 꽃다발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호소한다.

로사리오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사랑과 욕망, 나쁜 성격과 번뇌를 매어 두고 악령을 묶어 둘 수 있는 사슬이며,
우리에게서 속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매듭 있는 노끈이고,
악의 철갑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소년 다윗이 자신의 신앙심을 재어 넣은 돌팔매 투석기이다.

로사리오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마리아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는 끈이며,
피안을 향해 나아가는 나룻배 위에 있는 이들의 닻줄이고,
영원한 고향의 항구에서 우리가 정박하게 되는 닻의 밧줄이다.



❖ 나무와 열매, 집짓는 사람의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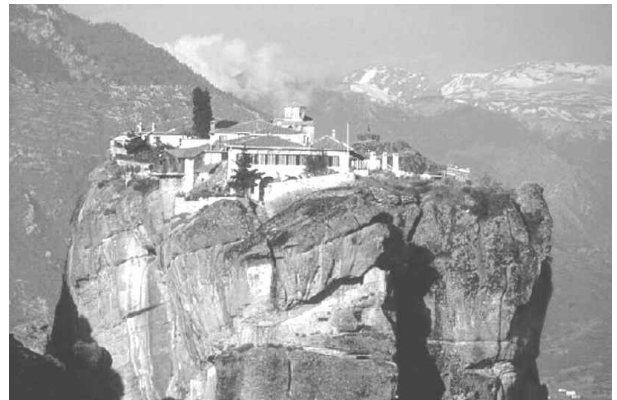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1장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1절을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이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6장 43-45절, 47-4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써 성공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어떠한 일을 당장 실천하여 좋은 결실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어떤 일을 하는데 즉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조안 리의 저서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에는 샌프란시스코 최대 갑부 줄리어스 메이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에서 크게 성공한 로스차일드사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기로 했다. 어느 날 사장이 지점장 물망에 오른 한 직원을 불러 “떠나기 전에 준비 기간이 며칠이나 필요한가?” 하고 물었다. 직원은 깊이 생각하더니 “열흘쯤 걸리겠다.” 라고 대답했다. 뭔가 성에 차지 않은 사장은 다른 직원을 불러 물었다. 그 직원은 “사흘쯤 걸리겠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여전히 성에 차지 않은 사장은 직원을 한 명 더 불러 물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대뜸 “지금 당장 떠나겠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장은 “좋아, 자네가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일세.” 하고 말하며 만족스럽게 악수를 나눴다. 이 세 번째 직원이 바로 줄리어스 메이였다.

◆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를 부릅시다.



교리41

성경 길잡이 (10)

영감과 인간적 한계

영감에 대한 가톨릭 교의 해석에 따르면, 하느님은 단순히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그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영감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 진리들에는 오류가 없으나(가톨릭 교리서 107) 성경 안에는 우리 구원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많은 요소(그 시대의 과학과 역사의 개념 따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에서 비롯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는 불완전한 잠정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가톨릭 교리서 122)

성경 저자들은 그들이 지닌 과학적 지식의 관점에서는 당대의 사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 역시 당연히 지구가 기둥으로 받쳐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도는 둥근 공 모양의 물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제한된 과학적 지식과 창조된 우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근본적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그들의 부정확한 인식 능력을 이용하셨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하느님의 총명한 계시를 완전히 다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당신의 영감을 받아들일 한도 내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기원전 5세기 전에 살았던 성경 저자들은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것과 허락하신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악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했습니다.(탈출 11, 10참조)

이 문제에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한계(전적으로 인간적인) 자체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진리를 전하시고자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 저자

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수 세기가 흐르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자 하느님의 진리를 점점 더 많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 가운데 뒤늦게 나온 책들과 신약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인과율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해석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한 단계 한 단계 사물을 배워 나갑니다. 그리하여 무지에서 차츰 차츰 앎의 상태로 옮겨갑니다. 성령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한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요한 16, 13)

기원전 3세기 전에 코헬렛을 쓴 저자는 영원한 삶에 대해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코헬렛의 메시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결정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카베오기 상, 하권이나 지혜서와 같이 좀 더 뒤에 나온 구약성경들은 죽음 이후의 삶의 존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삶의 실체를 더할 나위 없이 분명히 하셨으며 그분의 그러한 가르침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선포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변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사람들의 능력이 변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발전하는 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많은 성경 구절이 시대에 뒤진 것이지만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인류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 전체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더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교리42

성경 길잡이 (11)

영감과 불확신성

때때로 성경 저자들은 같은 책 안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떤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 확신이 없었거나 아니며 그 해석들이 그들이 보존하고 싶었던 각기 다른 전승에서 비롯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오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루카는 수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판단하지 못해 둘 다 포함한 듯합니다.

분명히 루카는 전자가 사실인지 후자가 사실인지를 밝히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고 또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틀림없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나타나셔서 바오로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확실성이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 성경 저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영적 실체의 표현에서 벗어난 문제들입니다.

교리43

성경 길잡이 (12)

성경과 성전 - 계시

가톨릭 교회가 전하는 성경과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교회가 맡은 역할을 상술한 모든 내용은 ‘성경이 교회에서 생겨났지 교회가 성경에서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교회는 성경을 구성하는 73권의 책을 하느님의 영감에 의한 것으로 선언하고 그 밖의 책들은 영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삶과 죽음에 관련한 하나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내용이 있다.’ 그 책들은 번갈아 가며 새로운 각 세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갈등이 수반되는 역동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 처음 4세기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활동을 제한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아니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

수님께서 하느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오류들을 반박하였으며 교회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성경에 담긴 중요한 교의에 관한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표명했습니다. 교회는 영지주의적 복음서들과 왕왕 성경의 ‘감추어진 책’이라고 불렀던 그런 책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그릇된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 방식, 공의회 결정,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형식과 예배를 통해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방법으로 ‘가톨릭(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를 인도하셨고 성경을 ‘가톨릭’ 책으로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독자적인 신앙집단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오직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신 진리만을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진리를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줍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초자연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보내셨습니다.(요한 1장)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설교를 통해 구두로 전하거나 글로서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초자연적 계시는 성전과 성경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성전과 성경의 내용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유산은 완전합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유산에 상관없이 오로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내용을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나아갑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유산을 세세대대 전하면서 하느님 계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렬하게 키워나갑니다.

전승 Tradition의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sacred

Tradition에는 교회가 성경을 전하고 해석한 방법 이외에도 공의회(公會議)의 결정, 신조(信條), 예배,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경에 바탕을 두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어떤 교회들은 모든 교의(敎義)가 명시적으로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초기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완전한 성경이 존재하기 전에는 성전을 믿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모든 교의는 성경과 일치해야 하지만, 성경 안에서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의가 그 한 예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은 언급하지만, 결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요. 성경에 암시적으로 내포된 그 내용은 교회의 성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또한 성전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 12-13)

비안네 신부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점 최영 서유 님숙 진진	18일	루 카 스 (St. Luke)	현김 안이 종태 동빈 옥빈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진 김재 이현 호영 준준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 명 옥
	프 란 츠 (St. Franz)	김기 리현 현훈	23일	이냐시오 (St. Ignatius)	윤 용 기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양현 김인 송유 호순 례례	28일	시 몬 (St. Simon)	김동 김대 최화 최순 리간 수영 남재
	프 랑 크	김기 기년		시 모 네 (St. Simone)	허 정 은
14일	부르카르도 (St. Burchard)	Gerding		라 파 엘 (St. Raphael)	김영 김영 이종 복호 하하
15일	아빌라 데레사 (Avila St. Teresa)	임소 아아			
16일	말가리다 (St. Margaret)	강순 행행			

❖ 지방 공동체 영명축일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영자(B) 황옥순(H) 노금순(O)	15일	데 레 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권중일(B) 부준우(O) 임종수(O)	18일	루 카 스 (St. Luke)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윤주해(B) 안수경(O)	28일	시 몬 (St. Simon)	유영도(H)
	프 랑 크	정유진(H)	30일	루 실 라	권명옥(O)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0월 27일 † 이원일 (요 셉)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계(€)	210,07	218,27	215,34	365,65

❖ 10월 성가번호

10월	입 당	봉 헌	마 침
6일	57	211	271
13일	517	212	401
20일	450	213	63
27일	49	210	246

❖ 미사 전례 ❖

10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봉사
6일	김형웅 야고보 이정자 쟈마	김동수 시몬 강신자 벨레데타	이정수 토마스 최영숙 데레사	2구역
13일	이경규 안스카 유곡지 아그네스	이영원 베드로 김정옥 크리스티아나	허길조 안드레아스 최장용 레오	3구역
20일	김순임 안나 이수용 필립보	김치수 도밍고 김영희 클라우디아	김유석 그레고리오 손대조 요셉	청년반
27일	백정선 토마스 이영자 헬레나	이현묵 요셉 권오상 마리아	허길조 안드레아스 최영숙 데레사	4구역

❖ 자진헌납금 ❖

월 9월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진윤희 진윤희, 임소아, 이경규, 박귀동, 박재형, 이정희, 이석우, 김형웅, 이선주,
이현묵 이현묵, 한말조

구좌입금 : 서유미, 김유석, 김영애, 최형식, 허길조, 광케빈, 오옥수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10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유럽성령기도회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는 한 마리안나, 손 모니카, 김 안나, 강 마리아님이 참석하십니다.
기도 중에 기억 부탁드립니다.
2.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독일 사목자 회의가 저희 공동체에서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 부탁
드립니다.
3.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다발 성모님과 함께 봉헌
하시길 바랍니다.

❖ 지방 공동체 소식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정기미사는 9월 14일(토) 연중 제 24주 미사로 은혜로이 봉헌되었습니다.
2. 9월 15일(일), Osnabrück Dom 성당에서의 국제미사에 공동체가 참여 하였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정 명 옥 살 로 메	040/ 644 8623 0170 400 4754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3742 0006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인 경 카타리나	0176 6424 3886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040/ 890 3264
			총 무	남궁춘배 발토로메오		040/ 850 9768
		2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허 채 열 크리스티안		040/ 570 9734
		3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강 순 행 마르가리타		040/ 297 543
		4구역	구역장	백 정 선 토 마 스		040/ 250 2589
			총 무	김 애 란 체칠리아		040/ 206 785

❖ 2013년 10월 ❖

날 짜	전 려	행 사	비 고
1 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유럽 성령묵상회	
2 수	수호천사 기념일		
3 목	개천절		꾸리아
4 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1구역 소공동체
5 토		브레멘 공동체 미사 17시	
6 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사목협의회	
7 월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8 화			
9 수	한글날		
10 목			
11 금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 17시	
13 일	연중 제28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독일 사목자 회의	
15 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16 수			
17 목	안티오키아의 성 이나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18 금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3구역 소공동체
19 토		하노버 공동체 미사 15시 30분	
20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연령회	
25 금		4구역 소공동체	
26 토			
27 일	연중 제30주일	지역분과 회의	
28 월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29 화			
30 수			
31 목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사목회장 정 명 옥 살로메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mannam.cathms.kr
E-mail: korea-ham@mannam.de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정 명 옥 살로메	annamo42@yahoo.de H.P : 0170 400 4754
	최 영 자 파울라	dada1311@nate.com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소공동체 17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